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00 2015 메이저리그 추신수 출전경기 AL 다비전시리즈 3차전 (텍사스·토론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이산가족찾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40 세계인 스페셜(재)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총출품 55 안녕 우리말	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재)	00 그린실버 고양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20 MBC 정오 뉴스 40 그린실버 고양이 좋다(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40 똑똑 키즈쿨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2015 전국 대학 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고려대·연세대)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웍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이연경의 직면직설	55 튜튼생활채주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사색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우치원 30 아유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큐스터
6	00 이산가족찾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특별생방송	00 2TV 저녁 생생정보 50 올림픽 축구 대표팀 전선경기 (대한민국·호주)	10 생방송 '빛날'	00 밤피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아인 피치 (인도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어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500인
12 40 충격 실화극 싸인(재)	35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후 시즌9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장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05:40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크 오늘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단종명 유지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의 흑진주, 케냐 1부 야생의 땅, 삼부루)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1:30 한국기획 (백년의비밀)
08:00 당동명 유치원 1	13:05 지식채널e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SBS 다크프라임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22:45 달라졌어요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5 캐니멀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8:30 두다다쿵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24:05 지식채널e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미술탐험대	18:25 두기탐험대	
08:45 코코코 다코	14:30 놀이더 구조대 보잉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발명이 팽팡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국어A>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2:30 " <미적분1>	15:40 " <미적분2(재)>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2>	17:20 " 평가문제 <미적분2(재)>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6:00 " <생명과학>	19:10 " <영어>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영어>
08:30 2016 수능개념 <유해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09:20 " <심주석의 수학>	21:40 " <문학A형(재)>
10:1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영어>	22:30 최재철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 <수학A>	23:05 인터넷수능<영어해독연습-종합>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23:55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국어 3-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 <국어 4-2>
08:30 한경 TEST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국어 6-2>
09:10 TV중학 <국어(1)(2)>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50 " <수학(1상)>	17:50 다크 오늘
10:30 " <역사 1>	18:00 TV중학 <국어 5.6>
11:10 " <국어(3)(4)>	18:40 " <수학3(상)>
11:50 " <수학 2(상)>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2:30 실전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13:00 데일리리 서술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통합신공 <수학(1상)>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과학 1(상)>	22:00 통합신공 <과학 2>
14:30 " <수학2(상)>	22:40 " <수학3>
15:10 오 마이 미래 2035	23:20 필독 중학 <사회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음 8월 30일 辛酉)

子	48년생 막연하게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라. 60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72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한다. 84년생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4, 71
丑	49년생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 될 수 있다. 61년생 의외로 앞당겨져 진행 될 수도 있다. 73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게 좋다. 85년생 기회는 한정되어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18, 84
寅	38년생 진전을 보이다가 결림돌에 넘어진다. 5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62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즉시 연락해 보자. 74년생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함이 무난하다. 86년생 보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07
卯	39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무탈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1년생 여건을 조성하고 보자. 63년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75년생 추진력이 향상 될 것이다. 87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라. 행운의 숫자 : 37, 45
辰	40년생 끌려 다니지 말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52년생 아직 실행의 시기는 아니다. 64년생 과실이 열렸으니 따는 사람이 임자다. 76년생 보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91, 66
巳	41년생 편견없는 발상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53년생 중차대한 일이 보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65년생 열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77년생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니 지체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0, 52

午	42년생 승산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라. 54년생 직접적인 것이 가장 실속이 있다. 66년생 무식도 같은 바늘이 되는 법이다. 78년생 기대했던 바가 허망해지는 처지이니라. 행운의 숫자 : 68, 58
未	43년생 무리하게 행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55년생 표현의 방법과 기교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중 대사를 진지하게 상의하게 되리라. 79년생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라. 행운의 숫자 : 02, 85
申	44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게 마다. 68년생 일일이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80년생 완화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95, 25
酉	45년생 겸손하면 더 존귀한 위치에 놓이게 되리라. 57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69년생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 81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1, 34
戌	46년생 불가항력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바를 이를 가능성이 크다. 58년생 기대는 거두는 게 바람직하다. 70년생 사소한 것까지 신경쓰는 것이 마다. 82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2, 15
亥	47년생 뜻밖의 지출이 예상되니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편하다. 59년생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71년생 목표를 향해 발돋움을 하게 된다. 83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오리라. 행운의 숫자 : 76, 4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첫 촬영 때 조승우 연기에 바짝 긴장”

영화 '내부자들' 안상구 역 이병헌

조승우·백윤식 등 연기파 배우 총출동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내부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내부자들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드라마다. '이끼', '미생' 등 작품마다 대한민국의 실감 나는 자화상을 그려낸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이 원작이다. '아저씨',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등 한국영화계 범죄드라마를 만들어낸 최고의 제작진들이 손을 잡아 화제를 모으는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에는 이병헌·조승우·백윤식뿐 아니라 이경원·김종파·배성우·조재운·김대명·김병욱 등 흥무로에서 선 굵은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남자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은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의, 배우들에 의한, 배우들을 위한 영화"라며 "언제 다시 이런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을까 싶은 정도로 환상의 캐스팅을 했고, 화끈하게 찍었다"고 말했다.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이 모인 만큼 촬영 현장은 자연스럽게 연기 대결의 장이 됐다. 이병헌은 "사실 웹툰을 보지는 못했으나 영화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똑똑하지만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듯한 '여우 같은 곰' 정치강패 안상구 역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승우가 캐스팅되고 처음 촬영했을 때 '정말 잘하는 배우구나, 바짝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칭찬했다. 또 "긴 시간 배우생활을 했음에도 전라도 사투리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전라도 출신의 연극배우와 함께 여러 차례 리딩연습을 하며 감정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올해 개봉한 '암살'에서 우정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조승우는 이번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는 무 족보 검사 우정훈 역을 맡았다. 우 감독은 조승우를 캐스팅하려고 삼고초려했다. 우 감독은 "축이었고 본능이었다"면서 "첫 사랑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이유가, 논리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 본능적으로 배역에 조승우의 얼굴을 떠올렸"고 말했다. 조승우는 "배역이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캐릭터 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도 "촬영을 끝내고 나니 내가 왜 거절했을까 싶은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 감독에게 세 번이나 퇴짜를 놓은 사실에 대해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했다"며 웃었다. 이병헌에 대해 조승우는 "내가 코흘리개 때부터 스타였다"면서 "첫 촬영 때 엄청난 에너지를 뽐내는데 그의 연기를 감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언론사 정치부장을 거쳐 현역 최고의 논설 주간위원이 강히 역을 맡은 백윤식은 이번 영화에서도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백윤식이 맡은 역할에 대해 이병헌은 "애초에 내가 탭댄 역할"이라며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대사들이 아주 적절했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백윤식은 "대단히 재미있고, 오락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내부자들'을 소개했다. 이번 영화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도 이날 제작보고회에 자리를 함께했다. 윤 작가는 "추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기초를 둔 작품을 주로 한다"며 "팬들도 제그런 면을 좋아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 원작과는 다르게 창작된 부분이 많다"며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싶어 우 감독님께서 보낸 시나리오를 10여 장 읽다가 더는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병헌

조승우

‘대세 그룹’ 엑소, 국내 첫 돔 콘서트 시대 열어

고척 스카이 돔 공연...관객 2만2000명 열광

드디어 한국에서도 돔 콘서트 시대가 열렸다. 그 시작은 '대세 그룹' 엑소가 맡았다. 엑소는 10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 돔에서 '2015 엑소-러브 콘서트 인 돔'(2015 EXO-Love CONCERT in DOME)을 열었다. 엑소의 공연이 열린 고척 스카이돔은 지난 8월 완공된 국내 최초 돔구장이다.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이기도 하다. 고척 스카이돔의 완공으로 뮤지션들이 선망하던 돔 콘서트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 돔구장은 지붕에 설치된 투명 차음막이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차단해 더 웅장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또 기존 실내 공연장보다 더 많은 관객이 입장할 수 있어 뮤지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엑소는 이 같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돔 콘서트를 열면서 한국 공연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관심 때문인지 고척 스카이돔에는 공연 2~3시간 전부터 관객 2만 2000명이 모였다.

이날 흰 옷으로 맞춰 입고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이런 의미의 의식한 듯 "엑소가 한국에서 최초로 돔 콘서트를 열었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돔구장이 만들어졌다. 잊지 못할 공연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멤버들은 "3~4층 관객이 혹시 일어해서 야광봉을 흔들다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함성이 다른 때보다 큰 것 같다", "어떻게 여기를 다 채워주셨나"고 말하며 돔 콘서트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엑소는 올해 발표한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와 2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가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정규앨범 모두를 밀리언셀러로 만드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돔 콘서트를 준비했다는 것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엑소는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가로 100m, 세로 33m 크기의 메인 스테이지, 1층 관객석 위를 움직이는 대형 무빙 스테이지, 이동차 등 화려한 무대장치도 준비해 돔 콘서트에 걸맞은 공연을 팬들에게 선사했다. /연합뉴스

